



[뉴스]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전면 해산 새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02



Economy

코스피	2953.97 (-35.27)	코스닥	1009.62 (-22.04)
금리 (미국 3년)	1.889 (+0.021)	환율 (원/달러)	1196.90 (+2.80) (5일)

# “로보틱스는 꿈이 아닌 현실... 궁극의 이동자유 실현”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메타모빌리티' 시대 선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실과 메타버스 경계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메타모빌리티'로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계획, 자동차와 UAM 뿐 아니라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솔루션도 개발했다. <관련기사 3·4면>

현대차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는 주제로 보도 발표회를 열었다. 정 회장이 직접 참석해 메타모빌리티 등 로봇을 중심으로 한 미래 계획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다.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모빌리티'로 확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 현대차의 로보틱스 비전이 인류의 무한한 이동과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로봇, 메타버스 벽을 깨다

메타모빌리티는 인류를 가상 공간으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스마트디바이스를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활용해 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 보도 발표회에서 로봇 스팟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등 모든 사물에 이동성 부여 '로봇', 메타모빌리티 핵심요소로 현실-메타버스 연결 매개체 역할

모빌리티 오브 씽스 생태계 위해 PnD·DnL 모듈 등 장치도 선보여

용자에 실제와 같은 경험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현대차는 메타모빌리티 시대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기술혁신을 거듭한 모빌리티가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로봇은 메타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미래에는 로봇이 경험한 것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몰입감과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방식은 산업 현장에서도 시간과 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 로봇과 현실 세계 장비, 사물 등을 완벽하게 구축해 멀리서도 공

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공장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 ◆ 메타모빌리티 첫걸음, 모베드

모든 사물이 이동성을 부여받는다면 현실과 메타버스 경계를 무너뜨리기 훨씬 쉬워진다. 이른바 '모빌리티 오브 씽스(MoT)' 생태계다.

현대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인 플러그 앤 드라이브(PnD)와 드라이브 앤 리프트(DnL) 모듈 등을 선보였다.

(3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초유의 횡령' 오스탬임플란트 상장폐지 관건은 회수가 가능 자금 규모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탬임플란트(코스닥 시총 23위)에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수가 가능 자금 규모가 상장폐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스탬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관리팀장으로 알려진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모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렸는데,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이 모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잡아 범행 자금이 거처간 계좌를 확인하는 즉시 계좌 동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주식매매 정지 상태 기업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감시 미비로 추가 하락 불가피

오스탬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오스탬임플란트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따지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친다. 1월 21일 내로 심사 여부가 확인 가능한 셈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0~35거래일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거래재개 또는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오스탬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거버넌스(지배구조) 리스크를 감안해 목표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4만원으로,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했을 때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5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 CJ제일제당 레드바이오 자회사 'CJ바이오사이언스' 출범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세계 최고회사 될 것”

(장내 미생물)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 전문 자회사인 'CJ바이오사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인체 서식 미생물생태계) 기반 면역항암·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CJ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초격차 연구개발(R&D) 역량을 확보한다. 코호트(비교대조군 방식 질병연구) 확대 및 글로벌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확보를 통해 바이오-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부장(왼쪽부터)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CJ바이오사이언스 출범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획이다. 바이오-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신약개발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마이

크로바이옴 신약후보물질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 성공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주력한다. 차세대유전체분석(NGS) 사업을 비롯해 유전체 진단·위탁개발생산(CDMO)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신임 대표는 "구체적으로 2~3년내로 면역항암·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신약파이프라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진입(1상) 및 글로벌 빅 파마와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수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면역 항

암제나 mRNA 백신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이 지난해 10월 인수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천랩'과 기존에 보유중인 레드바이오 자원을 통합해 설립한 자회사다.

천랩을 창업한 천종식 대표는 CJ바이오사이언스 신임 대표로 선임되면서 20여년간 몸담았던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에만 집중한다. 천 대표는 "오는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건, 기술수출 2건을 보유해 '글로벌 No.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이재명 “가급적 전국민 지원… 당장 하자는건 아냐” 속도조절 /사진 뉴시스
-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키로

- ▲ 송영길 “尹 반성 모습 보이려면 TV토론 참여”
- ▲ 김종인 “윤석열,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같이 못해”



- ▲ 안철수 “V3 납품 후 돈 못받았던 기억… 中소잘 돼야 경제 산다” /사진 뉴시스
- ▲ 포스코, 주주 친화정책 강화… 자사주 소각으로 배당 1만원 확대